

부산시 해운대구 동·서간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미래 예측(Regional Foresight)에 관한 시론적 연구

: 핵심 불확실성 미래 동인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전략적
함의로의 접근과정을 중심으로*

이 동 규**
민 연 경***
유 민 환

국문요약

본 연구는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해운대구의 동·서간 지역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미래예측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핵심 불확실성 동인으로 확인된 ‘서쪽 발전사업’과 ‘동·서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불확실성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클러스터, 자생, 현상유지, 스피로버 효과’ 4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4가지의 시나리오별 전략적 함의로 클러스터 시나리오의 경우, 석대와 센텀 첨단산업 조성으로 클러스터 군집강화, 자생 시나리오의 경우, 석대 첨단산업 단지의 거주민 고용증대, 드림시티 상권 활성화, 외부거주민 유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해운대구 자활센터를 통한 서쪽지역의 차상위 계층 자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반송·반여지역의 공유면적 확보, 생활환경 개선이 제안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스피로버 효과 시나리오에서는 서쪽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문화시설 확충, 서쪽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시 기존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미래예측을 통해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지역 미래예측, 시나리오 분석, 해운대구, 지역격차 완화

I. 서론

지역격차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환경, 복지 등 비경제적 측면의 격차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이다(문동진, 2009; 장재호, 2012).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밝힙니다.

** 주저자

*** 교신저자

간 격차 및 지역간 불균형을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는 지역 주민의 1인당 소득격차, 지역의 경제발전수준 차이로 설명하였다(김윤상, 1986; 홍기용, 1994; 한표환, 1999). 이후, 몇몇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복지수요 등 인간적 삶의 조건에 관한 광의적인 측면에서 지역격차를 설명하였다(홍준현, 2001; 초의수, 2009). 그 밖에 권오성(2004)의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력 지표를 지역격차로 정의하였다. 결국, 지역격차의 개념은 지역과 지방정부의 경제적인 소득격차 및 복지, 교육, 문화여가시설 등 물질적인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심리적 만족까지 포함하는 고차원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지역격차에 대해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보수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지역격차가 자유시장 체계 결과물로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격차가 유발하는 사회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구교준 외, 2010).

하지만 도시 내 지역격차의 현실은 날로 심화되어지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이우중(2003)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시가지들은 기성시가지인 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 등의 주택가격, 주거환경, 공원, 주차장 확보율 등의 비교를 통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간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기존도시의 인구, 사회, 문화적 특성이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두 도시 주민들 간의 갈등관계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제기하였다. 윤현신(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시설의 격차는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인 이질감은 물론 상당한 소외감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지역격차와 함께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 내 지역격차가 큰 서울의 강남과 강북지역과 마찬가지로 부산 해운대구의 동·서 지역간 불균형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에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통한 관광자원과 과거 수영비행장 부지에 개발된 센텀시티 안의 첨단산업단지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지역구이다. 또한 2005년 개최된 APEC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등 부산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국제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함에 따라 오늘날 해운대구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매력 있는 세계일류 도시 해운대’라는 문구에 걸 맞는 평판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운대구의 성장은 관광자원과 개발지구로 지정된 해운대구의 동쪽 지역(우·중·좌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바 있다. 반면, 1960년, 1970년대에 발전이 이루어진 부산 해운대구의 반송1·2·3동과 반여2·3동 지역은 앞서 언급한 해운대구 동쪽 지역이 가지는 평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저소득층 및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처럼 해운대구의 동·서 지역 간 사회·환경·복지수준 격차는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해운대구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산시의 해운대구청장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격차를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쪽 지역인 반송·반여·재송동의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확충, 반여동 석대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술교육원 설립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해운대구의 동·서간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새로운 미래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운대구 동·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 배경과 함께 앞으로 해운대구 동·서 격차가 불확실성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미래전략의 분석틀로써 미래예측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인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 분석 프로세스를 활용하였다. SRI 틀을 활용하여 해운대 동·서 지역 간 격차의 동인을 발견 및 예측하여 각각의 시나리오별 분석결과가 가지는 중장기적인 미래예측을 정책적 전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제도적 배경

1. 부산 해운대구의 동·서 지역간 격차에 대한 주요 현황

부산의 대표 신시가지인 해운대구의 동·서 지역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해운대구의 서쪽 지역은 2000년대부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등 중상류층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주상복합단지, 쇼핑 및 회사단지 등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서쪽 지역의 구시가지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주택, 시장 등이 혼재되어 있다. 실제로 해운대구의 신시가지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격차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해운대구의 동·서 지역간 격차는 1986년, 1991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해운대 1, 2지구로 각각 지정 및 1993년 7월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 개발이 추진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올림픽을 대비한 요트경기장 조성계획과 연계한 수변형 종합위락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지금의 마린시티 지역인 우1동이 1983년 6월 착공하여 1987년 12월 공유수면 매립이 완료되었다. 1991년 5월에는 수영만 매립지의 상업지역 도시설계가 수립되었으며 이후, 4차례에 걸친 지구단위 계획변경 이루어져 1994년 수영비행장 폐쇄와 함께 비행고도제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최종 해제되었다. 현재는 마린시티에 아이파크와 두산위브 더 제니스 등 초고층 주상복합, 콘도,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있어 인구증가와 함께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센텀시티는 해운대구 우2동 옛 수영장 비행장 부지 약 35만평에 정보·업무·관광·상업·주거·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갖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산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자 1997년 8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의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혁신도시 건설로 2007년 4월 16일 부산 센텀지구를 혁신지구로 지정하여 2013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영상관련 3개 공공기관과 관련 유관기관 및 시설들이 이전하였다. 건설교통부 승인 이후, 20년이 채 안된 지금 센텀시티는 해운대구청과 백스코, 신세계·롯데 백화점, 부산정보문화진흥원, KNN 방송국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포스코 더샵 아파트 등 고급아파트들이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해운대 관광특구지역인 좌동 신시가지는 1996년 근린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체계적인 생활권 형성을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녹지공간 및 생활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부산발전연구원, 2007). 또한, 전국 최초이자 단일 행정동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대동제(大洞制) 및 대통제(大統制)가 시행된 지역으로 현재 마린시티와 인접해 대단위 아파트 지구로 성장하여 다양한 편의시설과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어 중산층이 거주하는 대표지역으로 발돋움 하였다.

해운대구 통계연보(2012)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해운대구의 동·서 지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 환경, 복지 측면에서 큰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해운대구의 총 18개 행정동을 신시가지인 동쪽의 우1·2동, 중1·2동, 좌1·2·3·4동과 기성시가지인 서쪽 지역으로 반여2·3동, 반송1·2·3동으로 구분하여 총 13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 환경, 복지 지표를 <표 1>과 같이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표 1> 해운대구 동·서 지역의 인구·경제·기반시설·복지 부문 지표(2012년도 기준)

(단위: 명, 1000m², %)

구분	행정동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수(비율)	사업체 종사자수 (비율)	공원 면적	의사 수	병상 수
신시가지 (동쪽 지역)	우1동	48,769	5,725(11.7)	1,043(2.1)	14,055(28.8)	358	295	1,092
	우2동	28,128	3,142(11.2)	272(1.0)	19,658(69.9)	344	340	549
	중1동	22,235	2,686(12.1)	432(1.9)	11,487(51.7)	28	213	611
	중2동	11,313	1,378(12.2)	223(2.0)	2,047(18.1)	56	143	283
	좌1동	19,476	1,777(9.1)	51(0.3)	6,324(32.5)	8	166	228
	좌2동	34,571	3,236(9.4)	112(0.3)	5,314(15.4)	24	1,248	1,480
	좌3동	19,160	2,082(10.9)	102(0.5)	1,744(9.1)	59	44	0
	좌4동	26,581	2,430(9.1)	61(0.2)	3,032(11.4)	83	54	831
기성 시가지 (서쪽 지역)	반여2동	16,946	2,357(13.9)	622(3.7)	1,654(9.8)	4	81	52
	반여3동	12,398	1,755(14.2)	398(3.2)	1,205(9.7)	30	67	5
	반송1동	10,968	1,862(17.0)	507(4.6)	2,208(20.1)	5	77	288
	반송2동	30,986	4,642(15.0)	2,567(8.3)	3,780(12.2)	15	47	162
	반송3동	9,289	1,498(16.1)	437(4.7)	1,635(17.6)	25	39	50

자료: 제33회 해운대구 통계연보

해운대구 동·서 지역의 인구부문에 있어서 기성시가지인 서쪽지역의 총 인구는 80,587명으로 신시가지인 동쪽지역의 총 인구 210,233명 보다 전체 인구 수는 적은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5%(12,114명)으로 동쪽지역의 10.7%(22,456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 전체의 고령화 정도는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쪽지역은 총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 동쪽지역은 그보다는 낮은 7% 이상의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경제부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과 사업체 종사자 수 지표로 비교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의 경우, 신시

가지인 동쪽지역은 전체인구의 1.1%, 기성시가지인 서쪽지역은 5.6%로 서쪽지역이 동쪽지역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¹⁾ 종사자 비율에 있어서 동쪽지역은 인구의 30.3%(63,661명)로 서쪽지역 13%(10,482명) 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문의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동쪽지역은 4.14m²로 서쪽지역(1.26m²) 보다 약 3배 이상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문에서는 1인당 의료기관의 의사 수, 100인당 병상 수로 확인하였다. 동쪽지역의 총 병상 수는 5,074개로 인구 100명당 2.42개, 서쪽지역의 총 병상 수는 557개로 인구 100인당 0.69개로, 동쪽지역이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마찬가지로 동쪽지역(11.9명)이 서쪽지역(3.89명) 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성시가지인 서쪽지역(반여2·3동, 반송1·2·3동)은 신시가지인 동쪽(우1·2동, 중1·2동, 좌1·2·3·4동)과 비교하여 인구, 경제, 환경, 복지측면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명확한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2. 지역 미래예측의 의의

1) 지역 미래예측의 개념

지역은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책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미래예측이 중요하다(Ian Miles 외, 2002: 15-19). 최항섭 외(2006), 이동규 외(2010)에 따르면, 조직은 공통된 목표 하에 구성원의 미래전략을 설정하는데 미래가 가지는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미래전략 설정에 큰 걸림돌 즉, 미래사회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미래예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미래예측은 중장기적 관점(15-30년)에서 현재 상황을 분류하고 미래인식의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미래의 위협과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동규 외, 2012: 23). 결국 미래예측(foresight)은 회사, 정부, 연구자, 이해관계자, 기술자 등이 참여하여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결정에 다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체계적인 힘으로 공동의 행동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Ian Miles 외, 2002; 이동규 외, 2010).

Grant(1897)는 정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미래예측 요인으로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래예측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폭넓은 관점과 장기적인 시야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공동체와 함께 분석을 실행해야 한다. 넷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의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여섯째, 미래예측의 범위는 지역적이면서도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동규 외, 2010: 2 재인용).

지역 미래예측(regional foresight)은 지역적 범위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네트워크, 예상, 비전, 행동이라는 5가지 구성요소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미래예측 활동을 말한다. 지역 미래예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종을 포함한다.

은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광범위한 지식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Ian Miles 외, 2002: 25).

2) 지역 미래예측의 유형과 방법론

지역 미래예측의 주요 유형은 집행과정을 기준으로 하향식 미래예측(top-bottom foresight)과 상향식 미래예측(bottom-top foresight), 추구목적에 따라 성과지향형(product-oriented)과 과정지향형(process-oriented)로 구분할 수 있다(Ian Miles 외, 2002). 먼저, 집행과정을 기준으로 하향식 미래예측은 정책결정자, 연구자,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소수 전문가 집단에 의해 델파이 기법, 세미나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예측 자원을 탐색하는 활동을 말한다. 하향식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폭넓은 미래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상향식 미래예측은 웹사이트 이용자, 지역 이익단체 등 광범위한 구성원들이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토론 즉, 상호작용 함으로써 미래의 필요자원을 탐색하는 유형이다. 하향식 접근법의 통제 용이, 시간 효율성이라는 장점과 상향식 접근법이 가지는 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의 합법적이고 폭넓은 자료탐색 편이성을 얻고자 실제로는 하향식과 상향식 미래예측이 혼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상향식 접근법이 가지는 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을 채택하여 미래를 예측하면서도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향식 미래예측을 활용할 수 있다(Ian Miles 외, 2002: 51).

다음으로, 미래예측의 추구목적에 있어서는 성과지향형 미래예측과 과정지향형 미래예측이 있다. 성과지향형 미래예측은 특별한 결정이나 보고, 우선순위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필요한 미래예측 방법으로 보고서 비디오, 우선순위 목록, 행동 포인트 등의 형식적 성과(formal products)를 강조한다. 이때, 형식적 성과는 소수 의사결정자들의 목표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향식 미래예측과 관련이 있다. 한편, 과정지향형 접근법에서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학습과정이 강조되며, 이러한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은 다양한 행위자가 지식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설립하거나 강화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향식 접근법과 관련이 있다. 또한, 조직 네트워크 스스로의 미래예측 절차 개발을 지향하는 능력개발(developing capability) 역시 과정지향형 접근법에서 강조된다. 미래예측 활동은 성과에 의해 평가되지만, 그 활동의 과정에 의사결정을 하고 장기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지향형 미래예측 역시 중요하다(Ian Miles 외, 2002: 52-53).

지역 미래예측의 방법론은 탐구적 방법론(exploratory methods)과 규범적 방법론(normative method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탐구적 방법론은 과거 경향의 추론으로부터 미래상황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미래예측을 하는 방법론이다. 탐구적 방법론에는 교차분석, 전통적 델파이 등이 분석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규범적 방법론은 미래 가능성에 대한 설정으로부터 현재 주어진 자원, 기술, 제약 등을 고려하는 방법론으로 행태론적 분석, 델파이, 시나리오 기법과 같은 분석도구가 사용될 수 있다. 특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규범적 방법론이 효과적인 반면, 특정목표가 없는 경우에는 탐구적 방법론이 유용할 수 있다(Ian Miles 외, 2002: 61).

3. 미래예측 방법론으로서 시나리오 분석의 의의

미래연구를 위한 방법론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규범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분석이다. 시나리오 단어 어원은 영화·연극의 무대, 배경, 장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 방법으로써의 시나리오는 상상된 일련의 사건들, 특히 여러 개의 상세한 계획과 가능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나리오 분석은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 현재의 입장으로 돌아와 새로운 통찰력으로 미래를 고대하고 대응할 수 있다²⁾. 기존의 전략기획들은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예측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시나리오 분석은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의 미래예측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최항섭 외, 2005; 장종인, 2007, 미래기획위원회, 2009; 김정렬 외, 2010).

미래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은 준비, 주요 동인탐색 및 트렌드 분석, 동인들의 조합·배치, 시나리오 작성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준비단계는 알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시간적 범위(scope)와 질문을 명확히 설정하는 단계이며, 동인탐색 및 트렌드 분석은 거시적 동인들의 추세를 파악하게 된다. 다음으로, 조합·배치 단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영향력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동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단계들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단계이다(김정렬 외, 2007). 이때, 지역분야의 미래예측에 사용될 전략적 예측으로서 시나리오는 단순한 예측이 아닌 동인(drive)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다양한 미래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나리오는 미래예측에 대해 다음의 전제조건과 함께 장점을 가진다. 첫째, 시나리오 분석은 전략적 기획 도구로서 미래예측·변화모습을 스토리 형식으로 마치 그 사건이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표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기획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현재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관한 이해당사자와 이해당사자간 서로의 영향력 관계를 고찰하여 정책과 전략, 행동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방법은 시나리오 작성과정에 전문가 패널과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설득가능성(ability to persuade)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한다(김정렬 외, 2010). 이러한 측면에서 시나리오 분석기법은 전략적 결정과 정책형성 과정에 있어서 보다 높은 정확성을 보이고 있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본 연구는 소수 전문가 그룹, 설문지, 워크샷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방법 중 폭넓은 범위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소수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4.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한 미래예측 선행연구 검토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한 미래예측에 관한 선행연구는 환경, 도시, 화물운송 및 이동통신 시장 등 특정 분야의 경쟁력 분석, 정치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확실한 미래상황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결정요인을 추출하고 이들의 변화방향을 예상함으로써 전략적 대응을 살펴보고 있다(김창석·김주영, 2001; 정연우 외, 2004; 이정우·이성환, 2005; 정태원·박영태, 2005; 이지석, 2008; 김철

2)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군사적 작전을 짜는 방법으로 처음 등장한 시나리오 분석은 그 후 1960년대, Herman Kahn에 의하여 기업들의 미래예측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민, 2010; 성기영, 2013; 윤영선 외, 2014).

먼저, 환경분야에 시나리오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창석·김주영(2001)은 시흥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변화 시나리오(최소변화, 추세변화, 주요변화, 성장의 삭감)를 설정한 후 환경질에 대한 주기 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환경질 변수 중 주로 물리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대기오염도, 수질오염도, 상수도 서비스의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흥시의 환경질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환경관리계획의 수립이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이지석(2008)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협상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안을 중심으로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살펴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참여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준안 1에 있어서는 시나리오 1, 기준안 2에서는 시나리오 2가 가장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선진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자발적 배출억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사지원 외(2014)는 미개발지 초기계획의 탄소배출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자료는 물론 에너지 수요예측,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측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분석된 비용 데이터를 적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S2 시나리오가 연간 29.99toe/억원의 가장 많은 에너지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선정과 배출량 절감을 위한 기법으로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영선 외(2014)은 건물부문의 조명, 가전기기, 냉난방, 공조, 취사 등 에너지기기 효율개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탄소세 정책을 기준으로 '기준 시나리오, 효율개선 시나리오, 탄소세적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각 시나리오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총 비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효율개선 시나리오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방향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항공화물과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력 분석에 있어서도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정태원·박영태(2005)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 유치를 위한 경쟁력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경쟁력 결정요인을 추출하고 설문을 이용하여 경쟁 공항간 항공화물 경쟁력 통합평가치의 결과 가장 경쟁력 높은 공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창이공항이 가장 경쟁력 높은 공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첵락콕, 인천, 간사이, 푸둥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논문은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인천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5%, 7% 수준으로 향상시켰을 때, 브랜드가치 수준 10% 상승 등 3가지 시나리오별 창이공항과 경쟁력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천공항의 개선요인과 개선수준을 결정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김철민(2010)은 열악한 경영환경과 비효율적인 운송구조의 문제점들 때문에 항공이나 해상운송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화물 자동차 운송 시장의 개선 방안을 부산 지역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2009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중심으로 6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행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화물 네트워크의 형태는 지역 중심의 화물운송관련 사업자들의 공동정보망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동정보망이 구축되었을 경우의 4가지 예상 수요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경제적 분석까지 수행하였다. 이정우·이성환(2005)은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사

결정 사안, 주요 변수선정, 변수 예측치 도출, 시나리오 구성'의 4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주요 변수는 통신 업계 관련자들을 인터뷰하여 미래상황에 영향을 미칠 불확실성 요인 6개를 선정하였다. 도출된 핵심 요인을 개요화하여 하나의 청사진을 형상화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총 729개의 시나리오 중 전문가 패널을 통하여 개연성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기존 통신 업체 입장의 발전적인 시장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 기존 통신 업체 입장의 비관적인 시장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동통신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단계별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국방분야 역시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연우 외(2004)는 시나리오를 통하여 도시계획 분야에서 현상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들은 서울시 강남구와 인천시 서구를 연구 대상으로 도시 환경을 결정하는 7가지 요소(에너지, 공원·녹지, 도로, 지하철,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를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지표와 시설용량 수준을 변화시켜 미래에 도시 수용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후에 7가지 요소에 대한 시나리오들, 미래 시나리오 A(현재의 도시개발 추세 반영), 미래 시나리오 B(환경기준 및 지표 수준 강화)를 구성하여 그 시나리오들의 수용력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시나리오 A보다 시나리오 B의 수용력이 더 높게 예측하여 도시계획 분야에서 잘 활용되지 않던 시나리오 분석을 가져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분석하였다. 성기영(2013)은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와 미중관계의 전개양상이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4개의 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 추가도발을 자제하고 미중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미중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북한이 추가도발을 일으킬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대중외교 강화, 대북정책 공약의 집중과 선택, 정상회담 위주의 접근 지양, 경제와 안보의 탈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표 2〉 SRI를 활용한 선행연구

분야	저자	주제
환경분야	김창석·김주영(2001)	시흥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환경질 변화주기 분석
	이지석(2008)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협상의 한국경제영향 분석
	사지원 외(2014)	미개발지 초기계획의 에너지 수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측
	윤영선 외(2014)	건물부문의 조명, 가전기기, 냉난방, 공조, 취사 등 에너지기기 효율개선 정책방향 제시
항공화물과 통신시장	정태원·박영태(2005)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 유치를 위한 경쟁 공항간 경쟁력 분석
	김철민(2010)	부산 지역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개선방안 도출
	이정우·이성환(2005)	한국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업들의 성공전략
도시계획과 국방분야	정연우 외(2004)	서울시 강남구와 인천시 서구의 도시환경 결정요소(에너지, 공원·녹지, 도로, 지하철,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를 활용한 미래 도시수용력 변화 예측
	성기영(2013)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와 미중관계의 전개양상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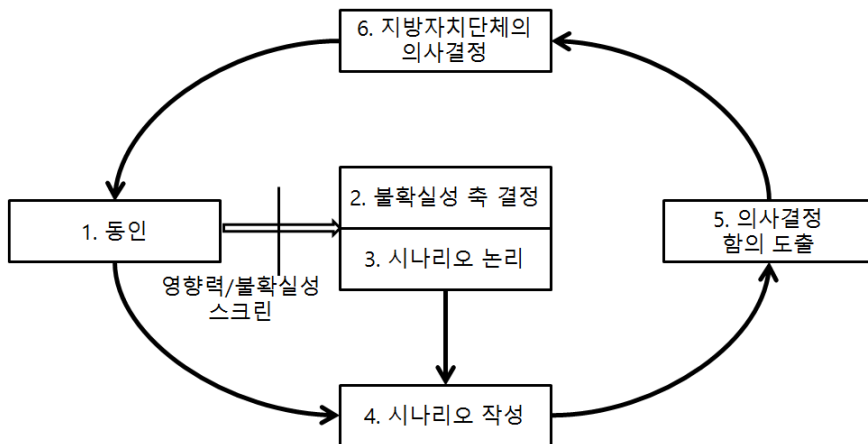
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SRI 시나리오 분석기법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 시나리오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의사결정 전까지 의사결정 사안, 동태 파악 및 분석, 불확실성 축 결정, 시나리오 논리 및 작성, 의사결정 합의도출 등 5단계로 진행된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3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사결정 사안 단계에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범위와 시간, 틀, 주제 등을 명확히 결정하여 사안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동인파악 및 분석 단계에서는 주요 의사결정과 미래상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트렌드나 이슈를 결정하는 주요 원동력 즉, 동인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다음으로, 여러 동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크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은 핵심 동인을 추출한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35-36). 이때의 핵심 동인은 불확실성축 2개의 높고 낮음에 따라 4개의 시나리오(시나리오 1(+,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3(-, +), 시나리오 4(-, -))가 도출될 수 있다. 즉, 핵심 불확실성 동인은 시나리오를 구분하는 분기점으로써 동인들의 진행방향에 따라 시나리오는 크게 달라진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네 번째 시나리오 작성단계에서는 불확실성 축이 3개 이상으로 시나리오 수가 8개 이상 도출될 때 논리적이지 않은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불필요한 시나리오 수를 줄이게 되며 이렇게 선정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작성한다. 특히, 스토리를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확정된 동인을 미래의 한 시점으로 옮겨가 현재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작성되면, 마지막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통하여 전략적 함의를 도출한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37-40).

SRI 시나리오 분석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 SRI 시나리오 분석 프로세스



자료: 미래기획위원회(2009) 재구성.

시나리오 분석은 다양한 분야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으로 다양하게 제시 및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미래예측에 대한 연구는 정보기술로 인한 사회의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미있게 다가오고 있다. 즉,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불확실한 상황을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시나리오 분석기법을 미래예측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SRI 시나리오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해운대구 동·서간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어떠한 정책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가 해운대구 동·서간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도입 전 실효성 검토 및 정량적 분석의 선행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자료의 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해운대구의 동·서간 지역격차에 대한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 탐구적 미래예측 방법 중에서도 주요 동인의 불확실성에 따른 시나리오 작성이 용이한 SRI 시나리오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해운대구의 15년간의 중장기의 미래모습을 설정하고자 조사시점인 2013년부터 2025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미래예측 활동을 위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하향식 접근법으로 해운대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구의원 세 명과 해운대구의 실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 해운대구 소재 공공기관 본부장, 해운대구 자활센터 팀장 등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다. 해운대구정 경험이 있는 소수의 전문가 패널들을 중심으로 해운대구의 현 상황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요인, 동·서간 지역격차 완화방법에 대해 인터뷰³⁾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시점인 2013년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동·서간 지역격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인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파악된 동인들의 영향력과 불확실성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영향력과 불확실성이 높은 핵심 불확실성(critical uncertainty)에 속하는 동인을 두 개로 범주화하여 불확실성축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불확실성축 2개의 높고 낮음에 따라 4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출된 시나리오별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부산시와 해운대구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 및 전략으로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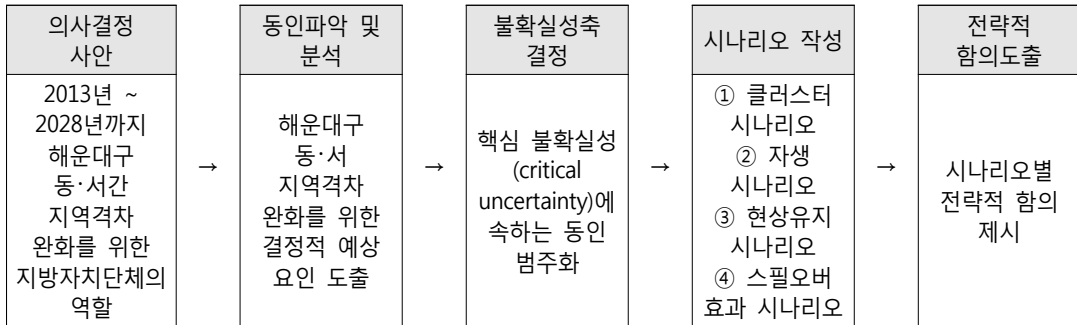
본 연구의 SRI 시나리오 분석절차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3. 전문가 패널을 활용한 SWOT 분석

본 연구는 해운대구의 동·서간 지역격차 완화에 대한 미래예측 조사를 적용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사전조사 성격으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문 내용은 크게 3가지로 (i) 해운대구의 강점과 약점요인은 무엇인가?, (ii) 동·서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 위험 요인 무엇인가?, (iii) 동·서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회요인 무엇인가? 등이다. 이러한 질문내용을 근거로 SWOT

3) 인터뷰 및 해운대구 답사는 2013년 9월12일부터 10월17일까지 진행하였다.

〈그림 2〉 본 연구의 SRI 시나리오 분석 프로세스



자료: 미래기획위원회(2009)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실시하여 해운대구 동·서 지역간 격차 발생이유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운대구정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인터뷰 결과, SWOT 요인별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요인의 경우, 해운대구의 천혜 자연환경으로 인한 많은 관광객, 센텀지구의 첨단산업 유치 및 계획도시, 영화의 전당 자리매김 의견이 도출되었다. 둘째, 약점요인으로는 동서간 양극화, 관광자원의 소극적 활용, 셋째, 기회요인으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법과 첨단산업 유치로 인한 석대지구의 산업단지 조성 및 이로 인한 지역주민 고용창출 기대, 롯데 돔구장과 제2벙스코 조성 필요, 해운대구 자활센터를 활용한 기초수급자의 자활근로 프로그램 진행이 제시되었다. 넷째, 위협요인의 경우, 구(區)예산의 감소, 해운대구 반송지역의 높은 저소득층 비율 및 고령화, 해운대구 재송·반송·반여지역의 열악한 재정상태, 석대지구 첨단산업의 외부인 고용 증가 등의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주요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한 SWOT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전문가 패널을 활용한 사전 SWOT 분석

구분	강점요인(Strength) ①천혜의 자연환경+관광객 ②센텀지구+첨단산업 유치, 계획도시	약점요인(Weakness) ①동·서 간의 양극화 ②관광자원 미활용(쓰레기 ▲, 체류 ▼) ③도시화(자연환경조화, 교통체증)
기회요인(Opportunity) ①도시재생법 ②석대지구 첨단산업 유치 ③석대지구 제2의 벙스코 ④석대지구 롯데 돔구장 (+아파트) ⑤자활프로그램	SO 전략 - (첨단산업 집중) 석대지구를 제2의 센텀 시티로 계획 <S ①, ② + O ①, ②> - 돔구장, 제2벙스코로 관광객 유인 <S ① + O ③, ④> - 반송지역 도시재생사업 <S ① + O ⑤>	WO 전략 - 도시재생과 자활프로그램을 통한 반송·반여지역의 생활환경 및 수준 개선 <W ① + O ⑤> -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도시와 자연환경 조화 고려 <W ②, ③ + O ①, ②, ③,④>
위협요인(Threat) ①구예산▼ ②자활의지▼ ③반송지역고령화 ④동·서간 부익부 빈익빈 ⑤석대지구 첨단산업 진입 시 외부인들 고용 추세	ST 전략 - 활발한 관광객 유치를 통한 구예산 확보 <T ①, ③, ④ + S ①> - 단순노무직 부분의 지역민 할당 고용비율 확대 <T ②, ⑤ + S ②>	WT 전략 - 석대지구 첨단산업단지에 지역민 할당제 <T ②, ⑤ + W ①> - 관광산업과 문화요소 결합으로 수익성 높여 구예산 확충 <T ①, ③, ④ + W ②,③>

IV. 시나리오 분석결과

1. 의사결정 사안 및 세부사항 설정

본 연구는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해운대구 동·서간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사안(decision focus)와 세부사항(elements)을 설정하였다. 그에 앞서 기간은 연구조사 시점인 2013년부터 2028년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의사결정 사항은 본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해운대구 동·서 지역 격차 완화에 있어 2013년부터 2028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세부사항의 구체적 질문은 범위측면에서 ‘앞으로 서쪽지역(반송동과 반여동)의 경제수준과 생활환경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가?’와 ‘동쪽(우·중·좌동)지역과 서쪽(반송·반여)지역의 교류는 2013년부터 2028년 기간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로 설정하였다.

2. 미래 동인(動因) 파악 및 분석

본 연구는 전문가 패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래(2013년~2028년) 해운대구의 동·서간 지역 격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을 동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동인은 동·서 지역 간 격차완화에 영향력이 높고 낮음과 불확실성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표 4>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향력과 불확실성이 높은 1사분면의 경우, 반송·반여 도시재생과 석대지구 드림시티조성사업, 마리나, 센텀, 해운대 해수욕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서쪽지역의 스페illover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과 동·서 지역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포함되어 있다. 반송·반여 도시재생사업은 「해운대구 2030 비전과 전략」의 10대 핵심 주요전략사업 중 ‘반송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반여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써 시행된다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큰 변화를 가

〈표 4〉 미래 동인 파악 및 분석

영향력 높음 · 불확실성 낮음	영향력 높음 · 불확실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송 지역자치회의 공동생산 시스템 정립 반송에 2개 대학 이전(영산대, 동부산대) 재송, 반여지역 재개발 반송, 반여지역의 높은 저소득층 비율 지하철 4호선 개통으로 접근성 증가 구청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송·반여 도시재생 석대지구 드림시티조성 마리나, 센텀, 해운대 해수욕장에 대한 투자확대로 서쪽지역으로의 스페illover 효과 기대 동·서 지역의 인적·문화적 교류
영향력 낮음 · 불확실성 낮음	영향력 낮음 · 불확실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텀시티 내 관광자원 풍부 주중 방문객 증가 센텀시티 내 적은 수의 기업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쪽지역 지역의 슬럼화 진행

저울 영향력이 높은 사업으로 기대된다. 석대지구 드림시티 조성사업 역시 「해운대구 2030 비전과 전략」의 10대 핵심 주요전략사업 중 하나로 세부적으로 전원형 단독주택과 명품주거단지과 같은 주택건설, 첨단산업시설, 상업시설(스포츠 파크, 메디컬 파크 등), 공공시설(해외대학 분교, 수목원, 요양시설 등) 등을 주요 시설로 구성하고 있어 석대지구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리나, 센텀, 해운대 해수욕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서쪽지역의 스푼오버(spillover)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 역시 영향력이 높은 동인으로 선정된다. 1990년대 후반 건설교통부의 승인 이후,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한 해운대구의 마린시티와 센텀지구는 인구증가 및 관광특구 지역의 엄청난 자본이 몰리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과 과정으로부터 외부효과가 창출되어 그 영향력은 서쪽지역(반송·반여)으로 확대되어 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동·서 지역간의 인적·문화적 교류도 이러한 상호간의 효과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하나의 동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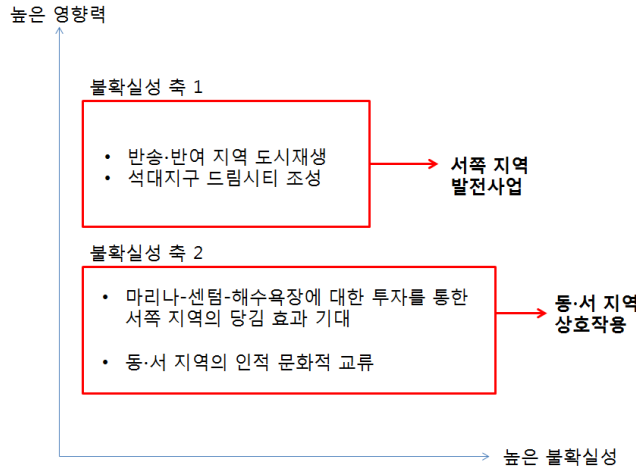
영향력이 높은 반면 불확실성이 낮은 2사분면의 경우, 계획이 확정되거나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5가지 동인이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송의 지역자치회 공동생산 시스템 정립, 반송에 영산대와 동부산대 2개 대학 이전, 재송·반여지역 재개발, 반송·반여지역의 높은 저소득층 비율, 지하철 4호선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증가, 구청 이전이 기성시가지(반송·반여 지역)에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영향력과 불확실성이 모두 낮은 제3사분면에는 센텀시티 내 세계 최대 크기의 백화점과 문화시설로 관광자원 풍부, 이로 인한 주중 방문객 증가가 있는 반면, 혁신도시 지정으로 2013년부터 영화·영상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었지만 예상 외로 적은 수의 기업입주 역시 현재의 센텀시티의 현황이자 법인세 감면 등 조세혜택 변화로 기업이전이 높아질 수 있는 영향력이 낮은 하나의 동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시가지 중심의 발전으로 인한 기성시가지인 동쪽지역은 상대적으로 슬럼화가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고 미래에 대한 영향력은 낮기 때문에 제4사분면에 포함될 수 있다.

3. 불확실성 축 결정

본 연구는 영향력과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 이른바, 핵심 불확실성(critical uncertainty)에 속하는 동인을 범주화하여 서쪽발전사업과 동·서간의 상호작용이라는 2개의 불확실성축을 <그림 3>과 같이 결정하였다. 먼저, 불확실성축 1은 반송·반여 도시재생과 석대지구 드림시티조성 동인을 묶어 ‘서쪽지역 발전사업’의 축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불확실성축은 마리나, 센텀시티, 해운대 해수욕장에 대한 투자를 통한 서쪽지역의 스푼오버(spillover) 효과 기대하는 방안과 동·지역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묶어 ‘동·서 지역 간의 상호작용’ 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 불확실성축 설정



4. 시나리오 작성

본 연구는 서쪽발전사업과 동·서간의 상호작용이라는 2개의 불확실성축을 토대로 2013년부터 2028년까지의 예측기간 동안 ‘클러스터 시나리오, 자생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 스피로버 효과 시나리오’ 4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작성한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클러스터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서쪽 지역발전사업과 동·서 지역 상호작용이 성공적인 경우를 ‘클러스터 시나리오’로 명명하였다. 반송·반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과 석대지구 드림시티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마리나, 센텀시티, 해운대 해수욕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반송·반여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켜 동·서 지역 간의 인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기성시가지인 석대 드림시티의 첨단산업단지가 신시가지인 센텀시티 첨단산업단지 와 연계되어 대규모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황윤정 외, 2007). IT산업과 문화컨텐츠 산업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반송·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와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나아가 해운대구 전체에 엄청난 인적·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켜 해운대구 동·서 지역 간의 생활수준 균형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2) 자생 시나리오

두 번째로 자생 시나리오는 서쪽 지역의 발전사업이 성공적인 반면, 동·서 지역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해운대 해수욕장의 관광수입과 센텀시티 내의 첨단산업

단지 등의 경제적 효과는 반송·반여 지역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반송·반여 지역은 내부의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수준이 개선되고 석대 드림시티 안의 첨단산업단지는 충분히 반송·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용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서쪽 지역의 자체적인 성장을 통해 해운대구의 동·서 지역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경우이다.

3) 현상유지 시나리오

서쪽지역 발전사업과 동·서 지역 간 상호작용 모두가 원활하지 못한 현 상황의 경우를 ‘현상유지 시나리오’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반송·반여 도시재생 사업과 석대지구의 드림시티 조성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하여 주민의 고용효과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서쪽지역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서쪽지역의 자생은 더욱 더 힘들게 되며 마리나, 센텀, 해수욕장 등 신시가지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동쪽지역만의 발전을 가져와 동·서간 교류가 늘지 않은 현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2028년의 동·서간 지역격차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같은 해운대구 주민들로 하여금 기성시가지인 서쪽지역을 같은 해운대구라고 인정하지 않는 등 주민들 간의 지역격차를 더욱 더 고착화시켜 이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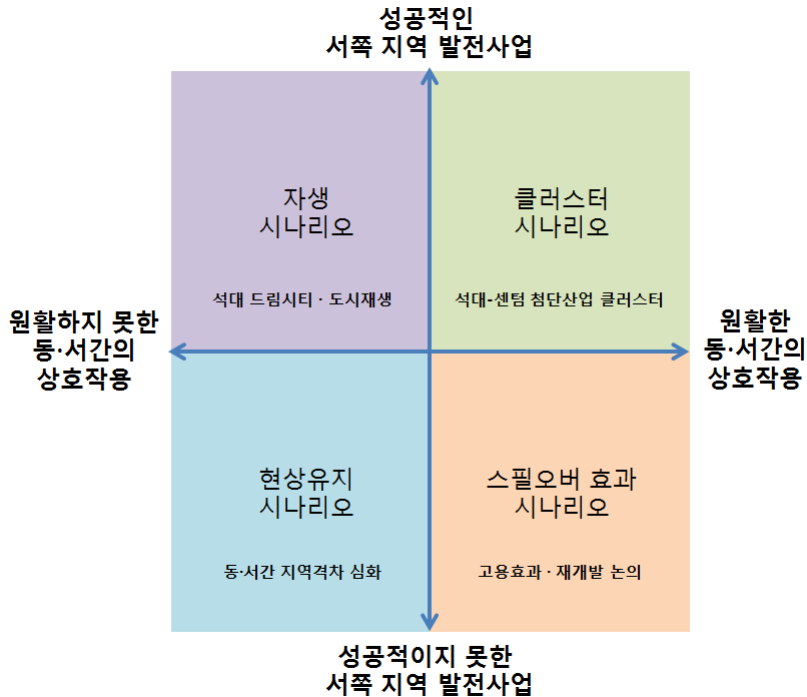
4) 스페일오버 효과 시나리오

원활한 동·서 지역 간 상호작용은 신시가지의 기성시가지에 대한 스페일오버(spillover) 효과로 서쪽지역의 성장을 불러와 해운대구 동·서간의 지역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는 보는 경우로 이를 ‘스페일오버 효과 시나리오’로 명명하였다. 지금까지의 센텀시티와 해운대 해수욕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센텀시티 첨단산업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불러왔고, 해운대 해수욕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써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앞으로 마린시티, 센텀시티와 해운대 해수욕장 등 동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기성시가지인 서쪽지역으로까지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쪽지역의 엄청난 경제적 성장 영향으로 반여동 지역의 재개발과 석대 지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동쪽지역이 발전하면서 서쪽지역으로 현재 스페일오버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전략적 함의도출

SRI 시나리오 분석의 5단계로 본 연구는 서쪽지역의 발전과 동·서간 상호작용 불확실성축을 중심으로 작성된 ‘클러스터, 자생, 현상유지, 스페일오버 효과’ 4개의 시나리오별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아래의 <표 5> 참조). 각각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부산시와 해운대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그림 4〉 불확실성 축을 토대로 작성된 시나리오4)



1) 클러스터 시나리오

클러스터 시나리오에는 서쪽 지역의 내부적 발전과 동·서 지역의 활발한 인적·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서쪽지역에 조성된 석대 드림시티와 센텀시티의 첨단산업단지가 이어진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 부산시와 해운대구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군집강화전략을 진행하여야 한다.

클러스터 시나리오에서 부산시와 해운대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다음의 세 가지 전략적 함의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군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석대 첨단산업 단지과 센텀시티 첨단산업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첨단산업을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선정하고 둘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군집형성 현황조사를 거쳐 석대-센텀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황윤정 외, 2007). 셋째, 해운대구 서쪽지역 소재의 영산대학교, 동부산 대학교와의 산·학·연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대학 발전과 지역 특화산업으로써의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X축의 동·서간의 상호작용은 현재(2013년)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가정에서 미래(2028년)에 긍정적 경제적 효과가 미치는 정도가 증가하면 원활하고,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으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Y축의 서쪽 지역 발전 사업은 석대 드림시티 조성, 도시재생 등 반송·반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미래(2028년)에 지역민들의 소득수준을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등이 지표로 확인되었을 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그렇지 못하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자생 시나리오

자생 시나리오에서는 동에서 서로의 스�필오버는 없지만 서쪽 지역의 내부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나리오다. 당초 센텀시티의 경우, 첨단산업이 많이 입주하기로 되어있었지만 변질되어 주거용 아파트·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계획만큼 많은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고 센텀시티 신세계 백화점으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차를 밟지 않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운대구 지자체 차원에서 석대 드림시티도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업들이 주민들을 많이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둘째, 석대지구의 도시재생과 함께 행정·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윤택해진 거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해운대구 외부에 거주하는 노동인구가 서쪽지역에 거주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송의 지하철 4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었는데 접근성을 좀 더 높여 외부와의 연계를 피해야 한다. 이러한 외부와의 연계를 통해 서쪽 지역의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현상유지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서쪽 지역의 자체 발전은 물론 신시가지로부터의 스�필오버 효과 또한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의 전략적 함의를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반송·반여의 도시재생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복지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성시가지인 동쪽지역은 신시가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아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을 줘야 한다. 현재 반송·반여 지역은 자활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운대구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운대구청이 가지고 있는 반송·반여 지역의 공유면적 건폐율을 낮추고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4) 스�필오버 효과 시나리오

동쪽의 센텀시티와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제적 파급력이 서쪽의 반송·반여 지역으로 확장되어 반송·반여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증대 효과와 여타 다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진행되도록 하는 스�필오버 시나리오에서 지방자치단체(부산시·해운대구)는 기성시가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하여 병원·도로·행정기관 등 사회기반시설, 체육시설, 공원 등 문화시설 확충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스�필오버 효과 시나리오의 경우, 서쪽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 지역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이 아닌 재개발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입주우선권 배부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표 5〉 전략적 함의도출

시나리오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함의
클러스터 시나리오	- 석대·센텀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군집강화를 통한 해운대구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자생 시나리오	- 석대 첨단산업 단지의 거주민 고용효과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 석대 드림시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서쪽 지역으로의 외부거주민 유인
현상유지 시나리오	- 해운대구 자활센터를 통한 서쪽지역의 차상위 계층의 자활 지원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반송·반여 지역의 공유면적 확보 - 서쪽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스필오버 효과 시나리오	- 서쪽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문화시설 확충 - 서쪽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시 기존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V. 결론

해운대구의 동·서 지역은 경제·사회·환경·복지의 다양한 지표에서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해운대구의 기성시가지인 서쪽지역(반송·반여2·3동)은 마린시티, 센텀시티, 해운대 해수욕장 관광특구가 포함된 신사가지인 동쪽지역(우·중·좌동)과 비교하여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의 경우 약 10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해운대구의 동·서 지역간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격차에 이승환(2002) 연구에서는 지역 간의 삶의 격차가 주거환경, 생활편의는 물론 공공안전에 대해서도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기성시가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집중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지역간 격차는 단순히 인구, 사회,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관계 역시 형성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제기하였다(이우종, 2003). 이러한 해운대구의 동·서 지역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성시가지인 반송·반여·재송동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사업 및 석대지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본 연구는 SRI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해운대구의 동·서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 사안으로 ‘해운대구 동·서 지역 간의 격차 완화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로 설정하고 전문가 패널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미래 동·서 지역 간의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인을 분석하였다. 그중 핵심 불확실성 동인으로 확인된 ‘서쪽 발전사업’과 ‘동·서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불확실성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4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시나리오는 첫째, 성공적인 서쪽 발전사업과 원활한 동·서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석대·센텀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동·서 간의 격차가 완화된다는 ‘클러스터 시나리오’ 둘째, 원활한 동·서간의 상호작용은 없으나 꾸준한 서쪽 지역발전 사

업을 통해 자생이 이루어진다는 ‘자생 시나리오’ 셋째, 서쪽 지역 발전사업과 동·서 지역 간 상호작용이 모두 원활하지 않아 현재의 상태가 미래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현상유지 시나리오’ 넷째, 서쪽 지역의 발전 사업은 미약하나 동쪽 지역의 꾸준한 투자로 인한 스페일오버 효과로 동·서 간의 지역격차가 완화되는 ‘스페일오버 효과 시나리오’이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해운대구의 미래 동·서 격차를 예측하는데 불확실성축에 기반 한 다양한 관점의 시나리오와 그에 맞는 유동적인 미래의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4개의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각각의 전략적 함의를 살펴보면 먼저, ‘클러스터 시나리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군집강화 전략을 통한 해운대구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자생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석대 첨단산업 단지조성으로 지역 거주민의 고용 증대 효과 및 상권 활성화, 나아가 기성시가지인 서쪽지역으로 거주민구가 유입되고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높은 차상위 계층 비율을 보이고 있는 해운대구 서쪽 지역에 대해 자활센터를 통한 정책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페일오버 효과 시나리오’에서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서쪽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도시재생이 아닌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미래예측을 통해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역분권화와 지역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미래예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간 경쟁에서 지역간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정확한 지역 내 산업의 변화예측과 영향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정책의 계획수립은 분석 및 예측에 기반한 실증적 접근이 아닌 당위적이고 규범적 접근이었다. 이처럼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으로 지방정부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미래예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운대구의 동·서 지역을 사례로 지역차원에서 격차완화를 위한 미래예측을 시도하였다. 해운대구 신시가지인 동쪽지역으로부터의 스페일오버 효과가 가능할 것인지, 기성시가지인 서쪽지역의 도시재생과 드림시티 조성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정확한 미래예측은 해운대구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해운대구 동·서간 지역격차 완화에 대한 미래예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학계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SRI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동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전략을 도출하였지만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고 다양한 관련 학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미래 전략의 실질적 실행 가능성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인터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구교준·김성배·윤종현. (2012). 용인 가능한 지역 간 격차와 지역정책: 삶의 역량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3): 173-192.
- 김경수·양진우·박미숙. (2004). 『부산지역 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김정렬·장지호·이도형·함요상. (2011). 전환기 정부기업관계의 논리와 전망: 전문가 설문과 시나리오 분석. 『한국행정연구』, 20(1): 125-157
- 김창석·김주영. (2001).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도시 환경질의 추이 분석: 경기도 시흥시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36(4): 43-55.
- 김철민. (2010). 부산지역 화물자동차 운송정보망 구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시나리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6(4): 101-121.
- 미래기획위원회. (2009). 『미래예측방법론』.
- 부산발전연구원. (2007). 『매가 프로젝트와 오늘의 부산』.
- _____. (2011). 『해운대구 2030 비전과 전략』.
- 사지원·이건원·김세용. (2014). 미개발지 건물 및 녹지부문 탄소저감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저감 잠재력 분석연구: 새만금 복합도시용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2): 103-112.
- 성기영. (2013).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성공 가능성: 북한 행동 변수와 미중관계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통일연구』, 17(3): 5-37.
- 윤성권·정영선·조철홍·전의찬. (2014). 에너지시스템 분석모형을 통한 국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분석. 『한국기후변화학회지』, 5(2): 153-163.
- 윤현신. (2000). 『신도시와 주변 구도시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의식의 비교연구: 일산 신도시와 구일산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규·서인석·김성태. (2010). 유비쿼터스 사회의 국가 전략수립을 위한 미래예측 수준 비교연구: serM 모형 및 S-erM-et-U 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국가정책연구』, 24(1): 81-111.
- 이동규·양고운·박형준. (2010). 미래 국가발전전략을 위한 미래예측(Foresight) 모형화(Modeling)에의 함의: Erich Jantsch, Denis Loveridge, David Easton의 모형을 중심으로. 『2010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집: 행정학과 국가발전전략』.
- 이동규·김철희·김춘석. (2012). 시스템적 미래예측을 통한 인구팽창 위협에 따른 지속가능성 동인(動因) 변화 연구: Loveridge의 미래예측 이론과 동인(動因)변수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8(3): 21-44.
- 이정우·이성환. (2005).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한 한국 이동통신 시장에 관한 연구. 『동서연구』, 17(2): 143-163.
- 이지석. (2008). 기후변화협약 논의동향과 협상시나리오 분석. 『사회과학연구』, 34(3): 105-121.
- 정연우·오규식·이동근·이왕기. (2004).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도시의 개발가능밀도 평가. 『대한국토계획학회지』, 39(5): 107-122.

- 정태원·박영태. (2005).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화물 경쟁력분석에 관한 연구: 퍼지역평가 및 시나리오 분석을 적용하여. 『대한교통학회지』, 23(6): 31-40.
- 최항섭·음수연·전미경. (2006) 디지털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연구보고』, 6(20): 1-179.
- 해운대구. (2013). 『제33회 해운대구 통계연보』.
- _____. (2013). 『해운대구 2012 구정백서』.
- 황윤정·권성택·연승준·김삼욱. (2007). 효과적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격자모형 설계 및 사례 연구: 충북SW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0(3): 1-17.
- Hirshman, A.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 Press.
- Ian Miles·Michael Keenan. (2002). Chapter1-Basic Concept. in *Practical Guide to Regional Foresight in the United Kingdom*, ed. Foren project. Gunter Clar. Christian Svanfeldt. European Commission: 13-39
- Ian Miles·Michael Keenan. (2002). Chapter2-Type of Foresight. in *Practical Guide to Regional Foresight in the United Kingdom*, ed. Foren project. Gunter Clar. Christian Svanfeldt. European Commission: 40-68
- Ian Miles·Michael Keenan. (2002). Chapter3-Background and Scope. in *Practical Guide to Regional Foresight in the United Kingdom*, ed. Foren project. Gunter Clar. Christian Svanfeldt. European Commission: 70-92

이동규(李東奎): 성균관대학교에서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한국의 대형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2010.8),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예산과 예산분석관을 거쳐,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과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분야는 정책학 이론 및 방법론, 재난관리 등이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초점사건 이후 정책과정 모형 연구: 정책실패 이후 정부 입법변화 과정 연구 가능성을 중심으로”(2013), “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연구(2014)” 등이 있다. 2010년 제8회 행정학 학술논문대회 최우수상, 2011년 한국행정학회에서 제18회 학위논문부문 학술상을 수상하였다(schema209@naver.com).

민연경(閔演卿):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네트워크 형성요인과 효과성: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2014. 8),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노인복지정책, 위기관리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시·도별 고령화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정책 대응(2013)”, “저출산 정책과 양성평등문화의 출산을 제고 효과(2013)”, “노인복지서비스 전달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효과성(2014)” 등이 있다(yk4198@dau.ac.kr).

유민환(劉民煥): 현재 동아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보)이다.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the Regional Foresight for Relieving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he East and West Districts in Haeundae-gu, Busan: Focusing on Scenarios Analysis through Key Uncertainty Drivers and Approach of Strategic Implications

Lee, Dong Kyu
Min, Youn Kyoung
Yoo, Min Hwan

This study aims at giving a foresight strategy for relieving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he east and west districts in Haeundae-gu, Busan by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 scenarios analysis. It suggests 4 scenario-cluster, autogenous, status quo, spillover-by setting uncertainty axis focusing on the West's development industry and interaction between East and West confirmed key drivers. Four different scenarios of the strategic implications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in the case of cluster scenario, the strategy was derived strengthening community of cluster due to build Seokdae-Centum high tech industry. In the case of autogenous scenario, the inducement was derived employment generation of Seokdae high tech industry's residents and dream city market revitalization, the inflow of outsiders. The West's the working poor selfsufficient through community center, securing public ownership space of Bansong·Banyeo area, improvement living environment have proposed in status quo scenario. Finally, the expansion of cultural facilities, infrastructure and the damage control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for the West's resident have been suggested in spillover scenario.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propose a policy strategy of an era of decentralization through foresight targeted the region, Haeundae-gu.

Key Words: Regional Foresight, Scenarios Analysis, Haeundae-gu, Relieving Regional Disparities

